



해외참관

에너지절약사업(ESCO)의 수출 가능성 타진



김찬호 과장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
chanho@kemco.or.kr

지난 10월 15일 제2차 한·중 에너지자
원·환경 분과위원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그간의 협력사업의 내용이 국가기관간
의 협의였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SCO사업 관련 필자와 ESCO협
회장(최석곤), 삼성에버랜드(방기영 소장, 오창민),
(주)SK(권태완 부장), (주)에너지솔루션즈(이범용 대
표), (주)대우인터내셔널(노영환 차장)이 동행했다.

우리는 첫날 호텔에 여장을 풀고 약간의 여유시간
을 이용하여 북경 시내에 있는 자금성에 갔다. 매스
컴에 자주 등장하는 천안문광장 앞에서 시작하여 자
금성 후문으로 걸어 나왔다. 일단 웅장함에 놀랐고
상징적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성을 3겹 4겹으로 쌓
아 놓은 걸 보고 중국 사람들의 철저함에 야릇한 느
낌이 들었다.

우리는 분과회의 사전 협의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러 후문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후문에서
기다리기로 한 승합차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잠시 후에 온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차가 도착한 것
은 약속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나서였다. 운전기사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운전사
는 말도 없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튿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가 넘도록
회의가 진행되었다. 점심시간과 중간에 두 번의 휴
식을 제외하고는 강도 높은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ESCO업무와 관련이 없
는 부문에서는 지루함을 느꼈지만 국가간의 회의인
만큼 한국의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열심히 들었
다. 그러나 중국측 참석자는 회의중에 자리를 비우
는 사람이 많아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휴
식시간을 이용해 중국정부 관계자와 ESCO기업에서
찾아와 한국과의 ESCO사업에 대한 많은 교류를 하
고 싶다고 했다. 오후 늦게 ESCO협력사업 발표시간
이 되어 필자는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자신있게 ESCO사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상

호 정보교류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중국측에 제
의하였는데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적극적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참석자 중 중국에 사전 경험이
많은 몇 사람의 경험담을 들었다. 그 내용의 공통된
의견이 시장이 크다는 것과 대금회수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순간 첫날 자금성에서 만났던 승합차 기
사가 떠올랐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이행
하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된 것이다.

이튿날 중국의 청화대학(공과대학은 중국최고) 연
구소의 배연탈황시설과 북경 오수처리장을 방문했
다. 물론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한
국에서도 우수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이었다.

셋째날, 드디어 한국과 중국의 ESCO사업 협력에
대한 별도의 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10분 정도 일찍
회의장으로 갔으나 중국측 정부관계자 및 관련기업
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어 우리의 ESCO제도 및 현황을 소
개하고 여기서도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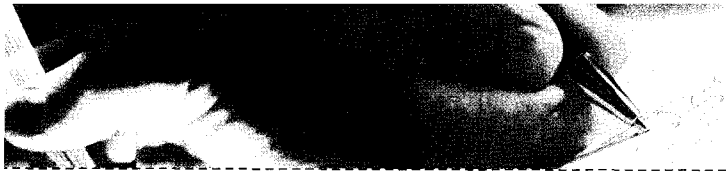
중국측은 상호 ESCO제도 교류와 ESCO사업 합
작투자를 강력히 희망(특히 중국 ESCO)했다. 중국
의 ESCO는 정말 적극적이고 진지했다.

합작 투자후 대금회수 문제만 없다면 일정을 연장
해서라도 많은 부분에 협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었으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에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의 ESCO사업은 99년도에 3개 ESCO사가 설
립되어 3년간 시범사업으로 180건(507억원)의 사업
을 추진한 실적이 있다. 주요 투자시설은 보일러, 전
기설비 등으로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ESCO) 3개사

●北京源深節能技術有限責任公司



①: 한·중 에너지자원·환경분과위원회 협약식
 ②: 한·중 ESCO사업 협력회의 모습
 ③: 회의 참석에 앞서 우리측 대표단이 자금성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왼쪽부터 에너지솔루션즈 이범용 대표, 삼성에버랜드 방기영 소장, 오창민, ESCO협회 최석근 회장, 필자, SK 권태완 부장).

- 遼寧節能技術發展有限責任公司
- 山東節能工程有限公司

〈한·중(ESCO) 비교〉		
구분	한국	중국
ESCO제도 도입	1992	1999
ESCO 등록	156업체	3업체
사업실적 (억원)	2,883억원	507억원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3.75%~4.5% • 10년 상환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5.5% • 20년 상환 (6년 거치 14년 분할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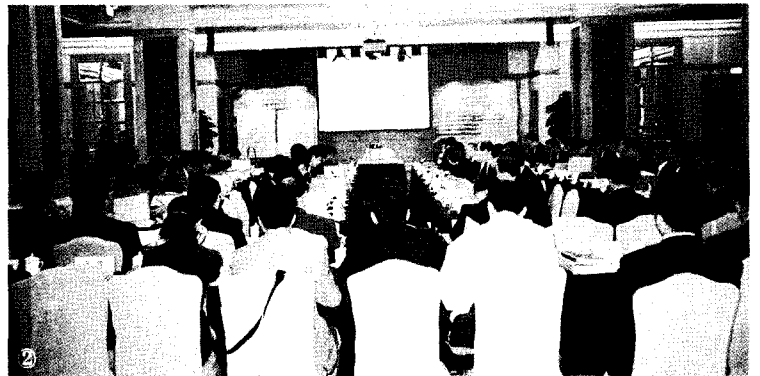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은 현재 에너지소비 세계 2위(753백만toe/한국의 4배)에 매년 10%를 상회하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작투자 등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서두른다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ESCO사업은 92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조기라 할 수 있는 97년까지는 미진하였으나, 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등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으로 대 국민 인식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발전과 ESCO사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에너지사용자나 금융권의 ESCO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야 금융부담 문제 등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CO의 기술력제고를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 ESCO협회 등에서 98년부터 에너지관리진단 교육, 공단과 ESCO의 합동진단, 토론회, 기술세미나, 에너지절약마트(E-Mart)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ESCO사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측정 및 검증 지침서 개발과 에너지진단관리사 자격 제도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ESCO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개발을 부지런히 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조만간 한국의 ESCO사업이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참고

- 2001. 10월 중국 ESCO와 교류협력회의 이후 기업간에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과도 ESCO사업 협력을 위해 정부간 협의 중에 있음.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드리고자 한 ESCO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여러가지로 힘써주신 ESCO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